

코로나로 힘든 시기 보내는 후배들에 도움되길



구례장학회 장용갑 이사장, 모교 구례중·자연과학고에 1억원 기부

어려운 형편에도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 힘 보태고 싶어

구례군은 장용갑 구례장학회 이사장이 구례중학교와 전남자연과학고등학교에 각각 장학금 5000만원을 기탁했다고

6일 밝혔다. 장 이사장은 구례군 토지면 출신으로 구례중 17회, 구례농업고등학교(현 전남자연과학고) 16회 졸업생이다. 화원약품 설립 대표와 재경 구례군 향우회 13~

14대 회장을 역임하며 학생 32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그는 1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구례 제5호 회원이기도 하다.

장 이사장은 "모교 후배들이 코로나19와 수재를 이겨내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희망과 힘을 보태고 싶다"며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학구열을 불태우는 학생이나 예체능 유망생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농협중앙회, 박종현 광산구 식품위생과장에 감사패 전달



농협중앙회는 최근 박종현(오른쪽) 광주광역시 식품위생과장에게 지역 농업인 위생관리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농협하나로유통 제공>

조선대 정부덕 교직원 1000만원 기부

남편·아들·며느리까지 조선대 동문 오랜 인연 맺은 학교에 감사의 마음

조선대 출신으로 대학에 근무하는 직원이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탁했다.

조선대는 학교 법인팀 직원인 정부덕(58·사직 왼쪽에서 세번째)씨가 최근 총장실에서 대학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6일 밝혔다.

정씨와 정씨의 남편, 큰아들, 큰며느리 모두 조선대 동문이고 작은 아들은 현재 조선대에 재학 중이다.



정씨는 "조선대를 졸업하고 대학 및 학교법원에서 30년 넘게 근무하고 있으며, 자녀까지 조선대학교를

통해 사회에 진출했다"면서 "오랜 기간 깊은 인연을 맺어 온 대학 구성원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후배 학생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가족들이 한마음으로 기부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민영돈 총장은 "정부덕 선생님과 그의 가족들의 뜻깊은 기부에 존경심을 표한다"면서 "기부하신 발전기금은 학생들의 성공을 위한 장학금으로 소중하게 쓰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찬양권능교회, 각화동 한부모가족 22세대에 이불 전달



찬양권능교회(담임목사 임강원)가 최근 광주시 북구 각화동 한부모가족 22세대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이불 22채(1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찬양권능교회 제공>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이용 플랫폼 '뉴스토어' 오픈

국내 84개 언론사 뉴스콘텐츠 판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환수)이 8일 뉴스저작권 합법 이용 플랫폼인 '뉴스토어(www.newstore.or.kr)'를 오픈한다.

뉴스토어는 국내 최대 뉴스 아카이브인 빅카인즈와 연계해 국내 84개 언론 매체의 뉴스데이터를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뉴스토어는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키워드 검색을 기반으로 기간·매체·기사 분류별로 상세 검색이 가능하다. 이용자가 쉽게 뉴스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도록 가독성과 사용 편의성도 높였다. 이용자가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면 검색결과 목록이 좌측

에, 클릭한 특정 기사 내용이 우측에 나타난다. 현재 뉴스토어를 통해 구매가 가능한 상품은 단건 기사와 뉴스DB 상품(벌크 상품)이다. 이용자가 기사 구매를 요청하면, 알림서비스(SMS, 이메일)를 통해 저작권자가 직접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때문에 저작권 확인 절차가 빠르고 쉽다.

또한 뉴스토어는 뉴스 바구니 기능을 통해 여러 건의 기사도 구입할 수 있으며, 쇼핑몰에서처럼 카드결제, 무통장 입금 등 이용자의 편의에 맞게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뉴스 원문 텍스트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뉴스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려는 이용자들에게도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이영애, 1억 원 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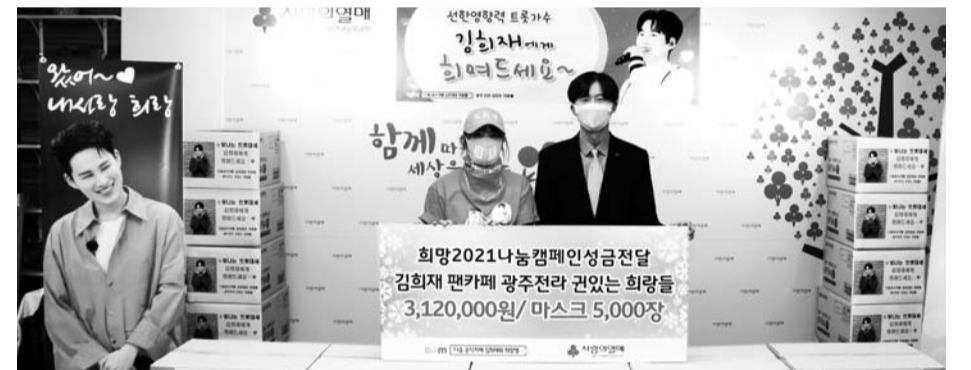
"정인양과 코로나의 의료진 위해"



배우 이영애가 부모의 확대대로 숨진 고(故) 정인 양 등을 기리며 1억원을 기부했다.

서울 아산병원은 이영애가 소아 환자와 코로나19 의료진을 위해 1억원을 기탁했다고 6일 밝혔다. 이영애는 "정인양처럼 사회의 무관심 속에 신음하고 방치되거나 아픈 어린이를 위해 기부금이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본인들의 안전은 뒤로한 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에게 작게나마 응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후원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트롯트 가수 김희재 팬카페, 광주 모금회에 성금과 마스크 기부



트롯트 가수 김희재 팬카페 '광주전라 권있는 희망들'이 최근 희망2021나눔캠페인 성금 312만원과 마스크 5000장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상원)에 전달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공>

TV프로그램 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KBS1	KBS2	MBC	KBC/SBS
0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0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0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찬란한 내 인생(재)	35 불새 2020
0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누가 뭐래도(재) 40 지구촌 뉴스	45 양코르 카이로스	10 SBS 뉴스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공감 스페셜 55 UHD 습터	00 바람피면 죽는다(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0 인간극장 스페셜	00 12 MBC 뉴스 20 반짝이는 프리채널 50 뽀뽀보 친구친구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날아라 개천장(재)
13	00 2020 IHO총회 특집 동해나 일본해(재) 55 감성애니 습자를 부탁해		20 푸리가 식사교실(재) 50 2시 뉴스 외전	00 뉴스브리핑
14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명탐정 핑크퐁과 호기 45 린다의 신기한 여행			
15	00 팍 잡아 30 열린채널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이 맛에 산다	
16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00 기본 좋은 날(재)	00 특목 보습설계(재) 55 닥터 365
17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또봇 V 2 15 개채! 티니핑 30 농친 예능 따라잡기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15 액션캠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어쩌다 마주친 그 개(재)
18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15 0매 전라도	50 닥터 365 55 전국 TOP 10 가요쇼(재)
19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비밀의 남자	05 생방송 연극복합 720+ 10 찬란한 내 인생 5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20	30 누가 뭐래도	30 펫 비타민		30 KBC 8 뉴스
2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30 바람피면 죽는다	20 UHD특집 다큐멘터리 건축의 시간	00 맛남의 광장
22	00 다큐 인사이트 50 더 라이브	40 평만 빌리지	20 심야교과목	35 어쩌다 마주친 그 개
23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50 스포츠 하이라이트	50 글로벌 파워 뮤지션발굴 프로젝트 ASIAN TOPBAND	50 접속! 무비월드 스페셜
24	10 BIFF 25주년 특별기획 영화로운 도시	15 통합뉴스룸 ET(재) 45 사랑의 가족(재)		20 나이트라인 50 닥터 365 55 kbc특집 힘내라! 청년농업

EBS1

06:0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형사 가제트
06: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뉴스	17:45 최고다! 호기심 딱지
07:00 띠띠뽀 띠띠뽀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8:00 생방송 특!특! 보니 하니
07:15 로보가 폴리	12:25 지식채널e	19:00 아바타-아이의 전설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2:30 클래스 e	19:30 자이언트 팽TV
0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3:00 명의	19:45 다크 잇!
08:00 당동당 유치원	13:55 EBS 스페이스 공감	20:35 아주 특별한 기행
08:30 마법버스 타요	14:45 도라도라 영어나라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8:45 휘트니스 유적박스	15:15 도전! 나도 과학자	<아시아 소수민족 기행 -산처럼 물처럼, 베타남>
09:00 꼬미와 베베	15:45 레인보우 루비	21:30 한국기행
09:15 또개비 가족	16:00 방귀대장 뽕뽕이(재)	<님과 함께 4부 개개골 스님의 새해>
09:30 물랑	16:1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재)	21:50 파란만장
09:40 우리집 유치원	16:30 당동당 유치원(재)	22:45 가족이 맞습니다
10:30 한국기행(재)	16:50 해오와 해오	23:35 EBS 비즈니스 리뷰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7일(음 11월 24일 乙卯) ☎ 010-9790-8237

<p>36년생 후회할 때는 이미 늦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48년생 미진한 점을 보완하고 진용을 정비할 때다. 60년생 변변치 못 한 결과 앞에서 상심하는 형상이다. 72년생 모순점을 개선 하지 않으면 손재가 따른다. 84년생 금전에 집착하는 것보다 인간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 96년생 시련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2, 66</p>	<p>42년생 수용 한다면 충분한 역할을 하리라. 54년생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 하는 것이 답이다. 66년생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이가 필요한 때이다. 78년생 열려 뭇 만만 화근을 만들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90년생 장시간을 요하므로 일찍부터 서둘러야 늦지 않을 것이다. 02년생 앞만 보며 밀고 나아가야 할 때이니라. 행운의 숫자 : 20, 72</p>
<p>37년생 손발이 적적 들어맞듯이 순조로움을 더하리라. 49년생 본질적인 부분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61년생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곤혹스럽게 할 수다. 73년생 평상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무탈하리라. 85년생 임시적인 방편으로도 모자라다면 무의미하다. 97년생 기본에 충실했을 때 진행이 차질이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5, 69</p>	<p>43년생 제대로 능력을 발휘한다면 교두보가 형성 된다. 55년생 일이 지난 후에는 후회해도 소용없다. 67년생 기대치에 못 미치지 실망하는 판도이다. 79년생 빈틈을 보인다면 기교한 일을 담랄 수도 있겠다. 91년생 사세가 급하다고 하여 불필요한 것까지 수용할 이유는 없다. 03년생 지금 바로 집어두어야 뒤탈이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14, 85</p>
<p>38년생 가만히 있으면 될 일인데 괜히 굶어서 부스럼을 내지 말자. 50년생 바쁘게 뛰는 만큼 소기의 결실이 따른다. 62년생 주변에 흔들리지 말고 소신에 충실할 때다. 74년생 한시름 놓을 수 있는 판국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다. 86년생 이번 고비만 잘 넘기면 호전 될 것이다. 98년생 형식을 멀리하고 실사구시 하는 것이 생산적이다. 행운의 숫자 : 72, 50</p>	<p>32년생 실효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핵심 요건이로다. 44년생 이 보 전진을 위해서 일 보 후퇴하는 것도 관습은 방법이다. 56년생 풍전등화와 같은 난국에서 전위위하리라. 68년생 주체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어지러운 형국이 놓인다. 80년생 목적이 부합하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92년생 재충전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05, 93</p>
<p>39년생 객관성을 유지하고 상응하는 관계 파악에 능해야 한다. 51년생 이면에서 작용하는 요인은 따로 있느니라. 63년생 절제할 줄 알아야 지속 가능할 것이니라. 75년생 쓸 곳은 많은데 알아서 곤혹스럽게 그치지않다. 87년생 굳은 마음가짐 이라면 충분히 견디어 낼 수 있다. 99년생 위상을 달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03, 78</p>	<p>33년생 상부상조해야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45년생 비운 다면 머지않아 채워질 것이다. 57년생 지금은 때가 아니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69년생 속도를 늦추고 뒤 돌아 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 81년생 정황 파악에 빈틈이 없어야만 할 것이다. 93년생 친분과 신용도는 전혀 다른 개념임을 알고 냉정하게 임하라. 행운의 숫자 : 33, 61</p>
<p>40년생 분명하다면 확실히 밀어 붙여야 한다. 52년생 제반사가 지체되고 결과가 늦어진다. 64년생 구태여 낭비를 할 필요까지는 없겠다. 76년생 간헐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무시할만한 상황도 아니다. 88년생 중동적이라면 무리한 판국을 조정하게 된다. 00년생 원칙을 무시하고 대충대충하는 괴로울 수가 있다. 행운의 숫자 : 44, 68</p>	<p>34년생 실적이 없다면 관련시킬 이유도 없겠다. 46년생 전문적인 시선이 있어야만 오만 하지 않는다. 58년생 순발력을 발휘한다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것이다. 70년생 착실한 실행이 앞장 결실을 맺게 해 줄 것이니라. 82년생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 자제하는 것이 유익하다. 94년생 경제적인 면이 제일 우선 되어야만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1, 52</p>
<p>41년생 쉽게 해결될 것이니 부담감을 버려도 된다. 53년생 지속적으로 진행 되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된다. 65년생 드러난 사세, 그대로이니 일반적인 입장을 취해도 된다. 77년생 성부에 집착하지 말고 최선을 다 하자. 89년생 안전에 관한 의식이 우선 되어야 한다. 01년생 신중히 실행해야만 빈틈이 생기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15, 87</p>	<p>35년생 골고루 살펴보아야만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 47년생 척자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해를 입게 된다. 59년생 검증 되지 않았으니 서두를 필요 없다. 71년생 관점의 한계가 파격적인 기회의 수용을 저해할 수 있다. 83년생 미끼일 수 있으니 넘어가서는 아니 된다. 95년생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발전된 양상으로 이끈다. 행운의 숫자 : 09, 60</p>